

꽃향기 흠날리는 봄 '여행 맛집' 순천으로 떠나볼까

매곡동 탐매마을-홍매화·동천 30일 길-벚꽃 '활짝' 마늘 통닭·닭구이·매실 닭강정 등 닭 코스 요리 대표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순천은 꽃내음이 가득하다. 매곡동 탐매마을은 선홍빛으로 물든 수백그루의 홍매화 군락으로 말 그대로 '꽃길'을 걸을 수 있다. 특히 새벽녘에 방문하면 아름다운 일출과 함께 매혹적인 홍매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다.

▶ 순천의 봄꽃놀이 가이드 : 동천에서 삼사까지

홍매화가 지면 우아한 분홍색 벚꽃이 피기 시작한다. 올해는 오는 28일 개화 예정으로 작년보다 3일 앞당겨질 예정이다. 매년 봄이면 순천의 동천 30리 길에 은하수와 같은 벚꽃이 활짝 핀다.

동천 30리 벚꽃길은 서면 학구리까지 동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서면우체국 앞마당과 용당뚝방길에서 벚꽃축제로 시민·관광객들에게 눈뿐만 아니라

오감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벚꽃이 떨어질 즈음 순천에는 다시 한번 겹벚꽃으로 만개한다. 특히 천년고찰로 알려진 선암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겹벚꽃 관광 명소이다.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완만하게 경사진 흠길을 오르다 보면 사찰 입구부터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겹벚꽃이 반겨준다. 사찰 곳곳에는 만개한 겹벚꽃으로 뒤덮여 방문하는 사람마다 감탄사를 자아낸다.

▶ 봄맞이 제철 순천 미식여행

봄 나들이를 갈 때에 식도락 역시 빠질 수 없다. 순천의 봄에는 닭요리가 인기다. 닭 한 마리를 압력솥에 통째로 튀겨낸 마늘 통닭, 청소골 산장의 역사와 함께 해온 닭구이, 소화를 돕는 건강한 매실과 닭의 만남인 매실 닭강정, 푸짐한 닭 코스 요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제철음식이 함께 나오는 순천한



상, 미나리삼겹살, 정어리쌈밥, 산채정식, 도다리숙국, 맛조개탕 등도 봄철 순천 대표음식으로 유명하다.

양효정 관광과장은 "추운 겨울이 지나 봄비가 내리며 봄 정취가 물씬 나기 시작했다"며, "지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순천으로

떠나 보시길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문화 콘텐츠가 녹아든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개장 준비에 한창인 순천만국가정원은 오는 4월 1일 관광객과 시민에게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제23회 광양매화 축제 현장 안전점검 실시

광양시는 7일 다압면 매화마을을 주행사장 일원에서 '제23회 광양매화축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소방서, 광양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소방, 시설, 가스 등 분야별 빈틈없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시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 밀집도 완화를 위한 조치 사항과 순간 밀집 지점인 매표소, 김포소, 주무대, 경사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축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적정 배치, 응급상황에 대비한 소방차, 구급차, 인력 대기 및 이동 동선을 살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기타 지적 사항은 축제 개최 전 보안 완료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보성군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21.3.3)' 3주년을 기념해 군민들과 함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에서부터 작은 행동으로 탄소중립이 시작된다는 인식 제고와 생활 속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성군은 지난 3월 6일 저녁 8시부터 약 10분간 관내 관공서와 공동주택에서 일제히 불을 끄는 소등 행사를 실천했다.

3월 7일에는 보성오일장에서 기후환경과, 보성읍, 보성군 새마을협의회 40여 명이 참여해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잘하기 등 각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가입 홍보를 병행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전기 사용이 감축된 가정에 연 2회 현금 또는 보성사랑상품권을 제공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여수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통령 표창'

여수시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2022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형재난 대비 국가종합훈련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단위 훈련이다.

이번 훈련 평가는 전국 335개 지자체 및 공

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12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최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5월 시는 '여수국가산단 화재·폭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누출 상황을 가정, 전남도 등 13개 관계기관과 GS칼텍스 등 8개 업체, 3개 병원, 산단 관계자 및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복구·수습 현장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고흥군, 해양쓰레기 수거로 어선 충돌사고 예방 김 양식장 유실 어구 수거에 군 정확선 '청정고흥호'연일 구슬땀

고흥군이 도양 시산도~나로도 사양 해역에 펼쳐진 김 양식장 약 1만ha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 생김은 3월 초까지 약 10만 톤을 생산했으며, 위판 금액은 약 1천 6백억 원으로, 어업소득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양식 시설이 종료되면서 발생하는 유실 어구는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일부 강한 조류에 의해 어망이 훼손돼 항로를 막거나, 항해하는 어선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고흥군은 지난 1월부터 '청정고흥호'를 투입해 유실 어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 양식 시설이 종료되는 4월 1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서 지역, 해안가 등 수심이 낮거나 접근이 곤란한 바다의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다목적 소형정화선 '청정고흥호'를 선제



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득량만부여 거제도 해역 및 여자만에 걸쳐 소형정화선을 이용해 907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이번 김밭과 어망 등의 유실 어구를 철저히 수거해 '사고 없는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김 양식은 고흥군의 주요 어업산업이지만,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안전 운항에 영향을 크다"며 "이번 수거 작업을 통해 청정한 바다를 만들고, 어업인의 안전 운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